

新 年 辭



甲子年 새아침을 맞이하여 먼저 前後方 各地域에서 國土防衛의 聖業完遂에 盡力하고 계시는 勇敢無雙한 國軍將兵 여러분의 健闘健勝을 祝願하며 自主國防達成을 爲한 安保産業의 役軍으로서 不徹晝夜 獻身的으로 이바지하고 계시는 會員社 全体從事員 여러분의 勞苦에 對하여 眞心으로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 입니다.

도리켜 보건데 지난해도 例外없이 닥쳐온 長期화된 國際的 經濟不況의 深化에도 不拘하고 官民一体가 되어 各分野에 걸쳐 總和된 力量을 集中하므로서 既往에 다져진 安定的 基盤을 더욱 鞏固히 하는 同時에 內實있는 成長을 標榜하면서 比較的 높은 經濟成長과 國際收支改善을 着實하게 이끌어 왔음을 忝多幸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蘇聯軍에 依한 大韓航空機 被擊이라는 衝擊的인 事件과 連이어 北傀共産集團에 依해 意圖的으로 事前에 計劃되어 恣行되었던 “아웅산” 慘變을 當한 우리로서는 이 엄청난 殺人魔的 蛮行에 對하여 다시한번 경악과 憤怒를 禁할 筈 없습니다.

그러나 先進祖國 建設이라는 歷史的 大命題를 눈앞에 두고 그대로 座視만을 할수 없으며 하루속히 이 試練을 克服하고 새로운 覺悟로 온갖 힘을 모아 國力伸張을 이룩하는 契機로 昇華시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의연한 姿勢와 決意로 一路精進하는 路만이 國家的 召命意識에 副應하는 要諦가 됨을 十分 省察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防産業界는 政府施策에 積極呼應하여 主要施設의 新銳化와 技術의 高度化 品質管理向上 등을 통한 高度兵器生産体制의 早期定着化를 爲하여 持續的인 研究開發事業에 全力投球함으로서 絶對優位의 軍事力 維持를 爲한 戰力增強에 積極參與하는 方便 尖端産業의 先驅者로서 國際的인 連繫性이 高潮되고 있는 現下 恒久的인 發展을 企圖하는 現實超克의 指標로서 業界自律協同과 紐帶를 強化하고 企業共存의 意識으로 自制와 調和로 이룩된 業界秩序를 確立하여 國際化에 對處하면서 豫見되는 經濟危機局面을 彈力性있게 밀고나갈 覺悟와 決意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會 事情上 不得已 今年에는 發行部數 및 發刊循環期를 調整 縮少 運營케 되었는 바 이 點 諒知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本誌發刊에 積極的인 聲援과 協助를 베풀어 주신 會員社 및 執筆陣 諸位, 그리고 關係當局에 깊은 謝意를 表하며 變함없는 指導鞭撻을 仰請하는 同時에 여러분의 健康과 家庭에 幸運이 있으시기 바라오며 貴部隊(會社, 機關)의 無窮한 發展을 眞心으로 祈願 하는 바 입니다.

1984年 1月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 長